

군불자수 제자리  
군종병·법사 미달  
특별교구 불투명

# 군포교 내우외환

개신교 공격적 선교  
원불교 올 '진입' 계획  
신흥종교 가세 노려

2020년에는 남한 전체인구의 약 75%가 개신교도가 된다. 이는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2/3를 선출할 수 있는 숫자다. 황당하기까지 한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완전 허구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 핵심에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매년 군부대 내에서 세례를 받는 숫자는 25만 명 정도다. 이 정도의 숫자가 매년 세례를 받으면 2020년 까지 625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탄생하고, 그들이 결혼해 교인 가정을 만든다면 개신교 신도 수는 가히 급수적으로 불어나 3700만 명이 신자

가 된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공격적인 군부대 선교는 이런 미래종교의 판도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 개신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교계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군불교의 현황을 '내우외환'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군 불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군 포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군법사는 모두 150명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130명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지원을 마감한 군종병 모집도 개신교가 9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반면 불교는 0.8대 1에 불과한 상태다.

군포교의 '사령탑'인 군승특별교구의 설립도 요원하다. 조계종 중앙총회와 법안비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상정된 '군승특별교구법'의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총회 의원 원택 스님은 "종현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 이후 2~3차 수정 및 검토가 이뤄져 3월 예정된 총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 내부 정책 조율도 빠지지 않고 있다. 진각종과 천태종이 조계종이 독식해온 군승 파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군승 지원자가 현역하게 부족한 형편인 만큼 조계

종이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이를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꾸준히 포교요원 파견과 교당 건립을 추진 중인 원불교가 올해 내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대순진리회 등 신흥종교의 군포교마저 가능해진다면, 군부대는 '포교의 황금시장'에서 신도 확보를 놓고 치열한 종교간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변할 태세다.

군승단장 장승화 법사는 "군불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승특별교구를 하루 빨리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승특별교구는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법당 등 물적 자

원과 인적 자원을 불교계가 직접 통제해, 군 포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 법사는 "그래야 종단과 함께 군포교를 총괄 관리하는 게 가능하고 산만한 후원 시스템 정비, 우수한 군승지원 수급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을 거느린 거대한 몸집의 '군불교'를 포교인 산하 단위로 묶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불교계 군 포교 관계자들은 또 개신교의 군 선교 조직인 '군선교연합회'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환경파괴 심각하다면 공사중지”

남영주 수석 '공동조사' 협의 앞두고 언급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동여부는 '도롱뇽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은 2월 4일 "천성산 공동조사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지을 스님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수석은 이어 "천성산 터널 공사가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처음으로 대안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광철호 환경부 장관도 "조사결과 습지의 물이 지하수맥으로 빠져나오고,

어떤 보완공법으로도 그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 수석은 또 협의의 당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환경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영향을 미친다면 발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해 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양측 협의는 2월 20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을 스님의 건강 회복속도를 확인하고 양측이 내부인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을스님 건강 '안정적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오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00일간의 단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지을 스님. 단식 회향 8일만인 2월 11일 저녁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을 스님은 차분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이와같이 말하며 "몸을 추스린 이후에 보

자"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6일 "지을 스님의 건강이 안정적인 상황에 돌입한 것 같다"며 "단식회향 이후에는 된장국물과 곡식을 우려 만든 물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당대 최고 강백 '총출동'

지관·무비·종법·우룡 스님 등 불교서울전문강원서 강의

지관, 무비, 종법, 우룡 스님 등 조계종 최고의 강백 스님들이 교학발전과 수행증진작을 위해 오는 3월 개강하는 제2기 '불교서울전문강원' (이하 전문강당)의 교수사로 나서 교계의 화제다.

3월 7일 개강하는 2기 전문강당에서 펼쳐지는 강좌는 초발심자경론(무관·조계종 총무부장), 서장(종법·중앙승가대 총장), 도서지운(前 송광사 강주), 절요(통광·쌍계사 강주), 선요(우룡·함월사 조실), 원각경(우진·통도사 강주) 능엄경(혜거·금강선원장), 금강경(지관·조계종 원로의원), 기신론(각성·前 해인사 강주), 화엄경1(지안·은혜사 승가대학원장), 화엄경2(무비·前 교육원장) 등이다.

전문강당 2기생 모집은 2월 18일 까지로, 수업은 주2회(화·수요일

오후6시부터) 각 3시간씩 서울 강동동 법련사 강당에서 실시하며, 모집 인원은 스님 50명, 재가 20명이다. 02)732-4923

한편 전문강당은 2월 28일, 1기 졸업생 58명을 배출한다. 지난 2003년 스님들의 전문재교육과 고급포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원한 전문강당은 첫 기수로 85명이 입학 했지만 수준 높은 강의와 엄격한 학사관리로 이수율은 68% 수준이었다.

조용수 기자

## '비구니 원로회의' 추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2월 1일 서울 일원동 비구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0일 비구니회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총회 안건으로는 한국 비구니의 수행전통을 조명하는 학술대회(9월) 개최, 총무원내 비구니부 신설 준비, 강원·선원·주지 중진 지도자 연수 등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칙개정 등을 통해 비구수 계단 차원의 별도 '원로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 지상파 DMB 사업진출

불교방송, NDMB사와 약정

불교방송(사장 이성연)은 2월 4일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지상파 DMB 방송 사업권 획득을 위해 NDMB플러스 컨소시엄(대표 김태섭)과 MOU(비공식 양해각서) 및 출자약정을 체결했다.

NDMB플러스 컨소시엄이 지상파 DMB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불교방송은 오디오 채널 운영, 프로그램 공급, 영상-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DMB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불교방송 이성연 사장은 "불교방송이 지상파DMB 방송에 진출한다면 기존의 FM라디오방송 영역을 보완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방송매체로서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DMB플러스는 DMB플러스와 NDMB의 통합 선언에 따라 2월 3일 출범한 컨소시엄으로 KDC 정보통신, 중소기업유통센터, 현대디지털, 현대정보기술, 모빌리언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사진 가운데)가 관장 혜성 스님(왼쪽)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2월 7일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설을 돌리고 있다.

## 이해찬 총리 청담복지관 방문

'사랑의 떡국거리' 전달

이해찬 국무총리는 설날을 맞아 2월 7일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 '기초 푸드뱅크'를 방문하고,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떡국거리'를 전달했다.

김철우 기자

이 총리는 이날 관장 혜성 스님으로부터 '금천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시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관내 결식아동 등 취약 계층에게 차질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통도사·구룡사 '쓰나미' 성금 1억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 왼쪽)은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 1억10만7000원을 전달했다. 성금 중 3000만원은 서울 구룡사에서 모금한 것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만'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불교TV 와 떠나는 홍콩\*심천 불교성지순례**

2005. 2. 27(일) ~ 3. 2(수) 3박 4일 일정 금액 890,000 원

**제1일**  
\* 인천 출발  
\*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도착  
\* 리펄스베이 / 해양공원 순례  
\* 빅토리아 산정에서 백만불 야경 감상

**제2일**  
\* 12,800여개의 작은 불상의 만불사 순례  
\* 흥법사 순례  
\* 소인국, 민속문화촌(소수민족쇼 1, 2부) 관람

**제3일**  
\* 동양최대의 청동 좌불상이 있는 보련사 순례  
\* 수상 레스토랑 점보식당에서의 광동식 디너  
\* 홍콩만의 독특한 저자거리인 몽콕 야시장 견학

**제4일**  
\* 홍콩 최대의 도교사원인 윙타이신 사원 순례  
\* 홍콩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지도법사 천안 각원사 현민스님

전날식당  
몽콕 야시장  
윙타이신 사원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